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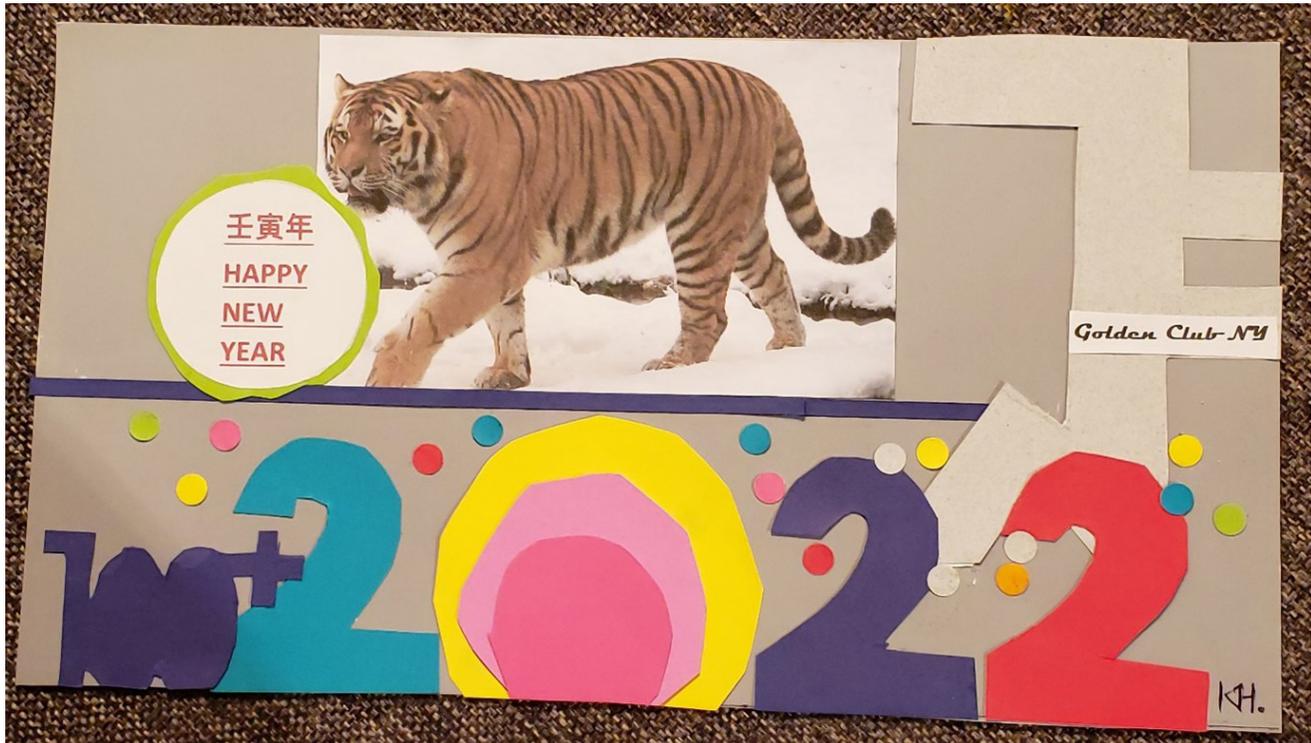
서울대학교 뉴욕지역 골든클럽 회보

GOLDEN CLUB NEWSLETTER

JANUARY 2022

WE LEAD A HEALTHY AND HAPPY LIFE

VOL. 117



謹賀 壬寅年 (Collage, 김광현 Dec. 2021)

Carpe diem - 지금 한껏

■ 이흥빈 (의대 57)

지금서 우리
뒤 돌아보랴두
앞을 내다보랴두

(잊을수야
잊힐리야
... 지을수야, 미쁜 우리 이상)

근원을 (따지면)
수십년을 (짚으면)
... 여기 이만치 우리인걸

우리 고래희 주마등 저만치 멀리
굳은 허리 껴 '맘 채양/실 눈' 내다보면

그제선 이만치 용케 따라온 추억
... 그 흠뻑 Nostalgia인거를

넘 너무 그리움 오구 가는걸
줄창 버리며 매번 새 아침
... 감사한 오늘 여기 이만치 우리인걸

그닥 밀려 밀려 쌓여온
이닥 그리움은
응당의당무릇사뭇
...몽땅 다 합쳐 감사한 우리 오늘인걸

닌들 부디 슬픔으랴 말기를
행복만으루 활짝짓는 웃음으루
이리루 저리루 저마다 뭇 꽃이기를
철마다 흰칠한 긴 한철 꽃이기를
살아 좋은 세상

때마다 천국으루/축복받은 우리
... 흐뭇 건네 쳐다보는 긴 한철 꽃이기를

그 선한 인성/목췌게 여태 소리 소리
우린 그때로 신들린 'Boogie Woogie'
... 오늘을 한껏 재밌게 피어 있지요

감사한 오늘은 벽찬 선물여라
사랑했노라 어제두/오늘두/내일두
재밌게 누리지요
행여 저 하늘에 내 별 하나 달아보지요

(Please someone to show me ...
Where in the heck all the dancing
floors've gone.
Again to tell me ...
Hitherto a sheer bliss for everlasting
'Boogie Woogie'.) ♪

2022년 신년교례회



그동안 저희 클럽이 Pandemic 2년간 만나지 못했으나, 조금씩 정상 생활로 접어들기에 내년 3월 26일(토) Atrium of Tenafly에서 신년 교례회를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다시 시작되는 신년교례회는 색다른 기념품도 준비하면서 모든 회원과 가족이 함께 즐기는 흐뭇한 자리를 만들고자 하니, 2022년 3월 26일을 일정표에 크게 표기하시고 다른 행사와 중첩되는 일이 없도록 배려해 주시고, 이번 행사를 원만히 진행하는 도움이 될 지원과 협조가 가능한 회원께서는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일시: 2022년 3월 26일 4시~9시
 4-5시: Registration & cocktail
 5-6시: 총회, 회계 및 행사 보고
 6-7시: Dinner
 7-9시: 여흥 순서, 가곡의 밤 및 장기자랑
장소: Atrium of Tenafly, 174 Essex Dr, Tenafly, New Jersey

연락: 홍중만, 646-342-2667, hong1945@gmail.com
 김정필, 201-965-7759, jaypkim@keiusa.com

여주영 명예회원 영입



그동안 Golden Club Newsletter에 좋은 원고도 보내주고 각종 행사에 협조를 많이 해준 '여주영 뉴욕한국일보 고문'을 골든클럽 명예회원으로 영입하여, 골든클럽과의 협조체제를 돈독히 하기로 하였습니다.

회원여러분들께서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함께 힘을 다해 클럽의 발전을 할 수 있도록 협조바랍니다.

2021년 동문장학금 수여

서울대학교 뉴욕지역동창회 장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장학생들이 선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서울대학교 동문 유학생 2명 - 장학금 각 \$3,000불
 1. 한종원 (Jong Won Han) 음대 성악과 2019년 졸업
 Manners School of Music, 성악과 Master
 2. 오연택 (Yeontaek Oh) 음대 기악과 2016년 졸업
 Manhattan School of Music, 피아노 Ph.D.

서울대학교 뉴욕지역 동창회 동문 가족 3명 - 장학금 각 \$2,000불
 1. 강미나 (Mina Kang) - 이준희 동문 (음대 1995) 배우자
 Manners School of Music, Piano, Master
 2. David Pedro - 허유선 동문 (생활과학대 1983) 자녀
 Rutgers University
 3. Marcus Yim - 임창우 동문 (사회과학원 1979) 자녀
 Syracuse University

2021년 장학생 미선정 신청자 격려금 3명 각 \$500불

여러 동문님들의 정성으로 모아진 장학기금 중에서 이상의 총액 \$13,500불의 장학금이 지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뉴욕지역동창회장 금영천
 장학위원장 조상근

2021년 인기 기사 선정

골든클럽 회보 편집 팀에서는 매년 좋은 원고 기사를 보내주신 회원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원고 2개를 선정하여 선물을 증정합니다. 선정에는 특별한 기준이 있기보다는 각 편집위원이 금년에 게재된 기사 중 2개 (편집위원들의 기사는 배제)를 제출하고 이중 가장 많은 투표를 받은 기사를 선정합니다. 일종의 인기투표라 하겠습니다.

금년의 선정된 기사는

- Keep Calm and Carry On (최진영, 4월호 게재)
- 골든클럽 여성 멤버 소풍한 날 (고애자, 9월호 게재)

입니다. 여러 분들이 좋아하는 원고를 보내주신 그분에게는 감사서신과 H Mart \$100 선물권을 보내 드리겠습니다.

편집회의 의논 중 지금 선정 절차로는 시, 미술, 사진 같은 작품은 선정이 잘 안 된다는 의견이 있어 2022년에는 기사 선정 범위를 늘리든지 아니면 새로운 category를 추가하는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2022년 새해를 맞이하며

■ 홍종만 골든클럽 회장

한 해를 보내는 소감과 새해를 맞이하는 신년인사를 나눌 때쯤이면 떠오르는 아침햇살을 바라보면서 새로운 각오를 다짐하고 서로의 발전을 기원하는 메시지를 주고받는 게 일상이었기에, 지난여름 이른 새벽, Acadia National Park, Cadillac Mt에서 바라본 미 본토에서 제일 일찍 뜨는 태양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골든클럽이 운영위원들의 열정과 회원들의 협조와 성원에 힘입어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해오던 일상적인 행사에 더하여 2022년을 대표할 수 있는 행사가 무엇일까 생각해보다가, 그동안 Pandemic으로 2년째 미루어 오던 '한국 여행' 행사를 9월 18일부터 30일까지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더 세월이 지나 해외여행이 자유롭지 못한 선배님들이 많아지기 전에 여러분 모시고, 떠나올 때와는 격세지감, 몰라보게 발전한 한국을 돌아보면서 세계화된 한국의 음식 맛도 체험하는 추억 어린 행사를 준비하자고 손대홍 회원과 의논하고 있습니다. 9월 하순 여행 일정을 염두에 두시기 바라며 계획에 차질을 줄 만큼 Covid-19 상황이 악화되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Pandemic 상황이 호전되는 데로 전세버스를 이용하여 200마일 반경 내에 있는 경승지, 유적지 등을 찾아보고, 2박 3일 정도 Adirondack Cabin에서 자연과 더불어 한여름 지내는 구상도 해보려 합니다. 이런 많은 행사를 유기적으로 이어 가기 위하여는 골든클럽 분위기가 활발해지고 회원 간의 소통과 친목이 원활해지도록 젊은 회원들의 역할이 중요하며, 2022년에도 젊은 동문들이 골든클럽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여 70-80년대 입학회원들이 골든클럽의 주축이 되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회원 여러분! 이 모든 것이 건강의 뒷받침이 있어야 하니, 내년에도 건강하고 즐거운 하루하루 되시기 바라며, 미주 전 지역에 알려진 골든클럽의 명성이 명불허전(名不虛傳)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가내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인사

■ 이준행 골든클럽 명예회장

뒤늦은 나이에 이런 명예로운 자리를 얻어 회원 여러분께 새해 인사 말씀을 드릴 기회를 갖게 되었음을 저로서는 다시없는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를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신 회원 여러분과 회장님 그리고 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돌이켜 보건대 불과 얼마 전까지 만해도 골프 outing을 위주로 별다른 특별한 행사를 하지 못하였었는데 특히 지난 해에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모든 분야가 위축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매월 열리는 골프 outing에는 매년 40명이 넘는 회원이 참여해 주시는 물론이고 매주 컴퓨터 강의, 등산, 야유회, 주말 여행에 플로리다 골프 여행까지 수많은 행사를 차질 없이 진행하는 모습을 보니 지난날 골든클럽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너무 훌륭한 모습에 꼭 자랑스럽기도 하며 놀라운 발전에 찬사를 보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골든클럽은 서울대 동문 간은 물론이고 뉴욕 교포 사회에서까지 널리 알려져 자랑스러운 클럽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게 한 사람의 노력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고 우리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없이는 골든클럽의 삼위일체와 상부상조는 나올 수 없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메트로 뉴욕 지역 뿐 아니라 이 세상 어디에서도 인정받는 훌륭한 클럽으로 발전할 수 있기를 기원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회원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영원히 깃들기를 축원하며 다시 한번 회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이만 줄이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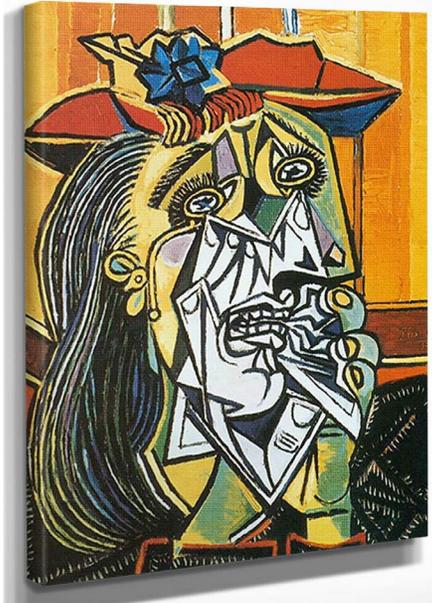


피카소와 코카콜라

■ 김광현 (미대 57)

현대 추상주의(Cubism, 抽象主義) 미술의 거장인 피카소와 세계적인 음료 상품인 코카콜라(Coca-Cola)와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 피카소는 너무나 유명한 세계미술사의 독보적 존재의 화가이며 다른 하나는 너무나 잘 알려져 오고 있는 미각자극제 음료상품인 코카콜라로 이 둘은 모두 1800년대 후반에 탄생한 인물이며 발명된 제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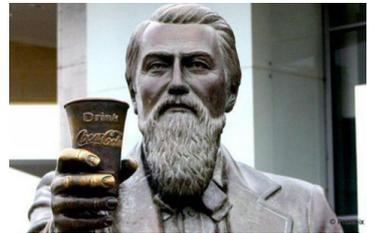
피카소는 한때, 공산당 당원으로 러시아의 스탈린 초상화를 익살스럽고 조롱하게 표현하였 기에 프랑스 공산당에서 제명되었으며 창작활동을 통해 미국의 6/25한국전쟁 개입을 적극 반대했고, 한국전쟁 중인 1950.7.25에 미군 병기부대에 의해 충북 영동 황간의 노근리의 철로와 터널에서 오인사격으로 135명의 사망자 및 부상자 포함 총 400여명의 희생자를 낸 '노근리 양민 대량 학살사건'을 비판했고 그의 고향인 스페인 내전에서 독일 나치군이 공중 폭격한 학살사건 (1937.4.26)으로 1654명의 사망자와 889명의 부상자를 낸 사건을 그의 대표적인 작품인 '게르니카' (Guernica, 349.3x776.6cm)로 나치독일의 침략자들을 응징한 비판적인 작가가이기도 하다.



Weeping Woman 1937

피카소는 1881년 스페인 말라가(Malaga)에서 출생했으며 프랑스에서 살아오면서 일생 동안 1만 4,000여점의 그림과 700여점의 조각 및 도자기 작품들을 창작했다.

한편 피카소가 출생된 5년 후인 1886년, 즉 135년 전 미국에서는 코카콜라 음료수가 발명됐다. 미국 조지아 주의 Atlanta의 한 작은 약국의 약사인 존 펠버턴 (John Pemberton, 1831-1888)은 우연히 호기심의 단순한 생각에서 멋진 영감을 얻었다.



피카소의 입체주의(Cubism) 미술은 후기 인상주의(Post-expressionism) 작가인 폴 세잔느 (Paul Cézanne)가 말한 '자연을 원통형, 입방형, 원추형 등으로 기존의 선

그는 약국안에 있는 여러가지 약재를 조합하는 일을 좋아해 어느 날, 오후에 두통을 없애달라고 하는 고객을 위해 이 치료제를 조제하는 중에 더워진 냄비 안에서 향기롭고 달콤한 냄새로 초기에 캐러멜 같은 액체가 완성되자 신기하게도 두통약이 아닌 전혀 다른 약이 되어졌다. 7 가지의 혼합제와 탄산수를 섞은 후 약국 손님들에게 시음하도록 했다. 약국의 단골 손님들은 이구동성으로 이 음료를 시음하면서 펍 맛있고 특이하다는 평을 했으며 그는 너무 흥미로워 약국에서는 이 진귀품인 음료수를 사려는 사람 들에게 한잔에 5c씩 팔기로 했다.

과 면의 사용을 대신해서 표현할 수 있다.'는 자연대상을 해체하는 기법을 구사한 화가, 브라크(Braque)가 추구한 입체적 표현 양식에서 유래했다.

이렇게 음료수가 팔리게 되 펠버턴의 친한 친구인 제리사 프랭크 로빈슨은 이 혼합 탄산수에 그럴듯하고 감각적인 이름인 '코카 콜라'



게르니카 1937

우리 나이에 희망은 무슨 희망

■ 최 진영(문리대 55)

'우리 나이에 희망은 무슨 희망' 이런 말을 듣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뿌연 연기 속에 2021 년의 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나이 탓인지 눈도 밝지 않습니다. 휘황할 만큼 아름다운 저녁 노을이 지는 데도 말입니다.

그런데 그럼 어디서 희망을 찾을까요? 저는 영문도 모른 채 마스크를 끼고 엄마 아빠 손잡고 아장아장 학교로 걸어가는 어린 아이들 한테서 희망을 찾습니다. 학교에 들어가서도 친구들과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하는데도 작은 손에 색연필을 들고 열심히 그림을 그리는 아이들 한테서 희망을 찾습니다.



신체적이나 정신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친구에게 학교 점심시간에 홀로 앉아 있도록 하지 않고 일부러 가서 같이 앉아 주는 마음이 고운 아이들이 희망을 줍니다.

이러한 예는 많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정이 가난하여 shelter에서 학교를 다니던 한 어린 학생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최고의 Ivy League 학교의 입학한 어린이도 있습니다. 지금 어렵더라도 마스크를 끼고 열심히 엮드려 글을 쓰고 있는 어린이들이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

며칠 전에 한 친구분인 할아버지가 손녀 자랑을 하는데, “공부도 잘하고, 이중언어까지 잘하고, 노래 운동 못하는 게 없다.”고 하였습니다

4면 피카소와 코카콜라에서 계속

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영문자 체인 스크립트(Script)인 필기체로 디자인을 해서 평범한 유리병에 붙이도록 해 주었다. 사업가가 아닌 로빈슨은 코카콜라를 팔기 위한 광고나 시장전략과 제품용기 디자인 개발 등에 까지는 생각을 못 했으나 1916년 즈음, 즉 105년 전에 코카콜라는 유연하고 감각적인 여성적 자태의 유니크한 곡선 미의 유리병 디자인과 ‘맛’과 ‘멋’의 결합인 ‘코카콜라의 빨강색’의 로고 디자인의 특이한 활자체를 창조적 컨셉트로 개발했고 소비자들의 구매의욕을 끌어 올려 오늘날 세계적으로 하루 10억 병 이상 팔리는 상품이 되어 ‘코카콜라 도시’라고 할 수 있는 Atlanta 시에 20 acre 규모의 박물관인 World of Coca-Cola를 세웠고 당시 약사인 펌버턴 기념지(Pemberton Place)를 조성해서 그의 이름을 기리고 있다.

이와 같이 만인이 좋아하는 장수상품인 코카콜라와 온 세계를 흔들며 놓은 미술사를 통한 피카소의 입체주의 표현의 화풍은 새로운 지향하는 고차원적이고 세심한 발상인 쇠신으로 서로 간의 동질성을 갖는다 하겠다. ✨



코카콜라 병의 역사적 변천

2022년 세금보고시즌을 맞이하여

■ 김병순 (사회 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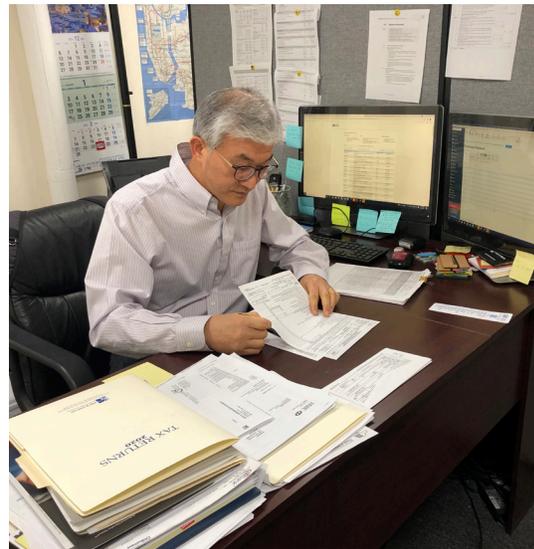
연초면 지난해의 세금보고를 준비하지 않을 수 없다. 계속 준비하던 일이지만 할 때마다 긴장되고 기대가 된다. 이번에는 세금을 얼마나 내야하나, 돌려받는 것은 가능한 것일까, 돌려받는다면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인가? 라는 의문과 기대를 가지게 된다. 금년에는 세금을 절약하고 적게 납부하도록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어떻게 달라졌을까 라는 것에 더 관심이 있겠지만 반대로 세금부담이 증가될 수 밖에 없도록 변경된 것은 무엇이 있을까 라는 것에도 촉각을 곤두세운다.

통상 매년 세법 변경 등이 예산편성과 함께 의회를 통과하면서 결정되었으나 팬데믹기간에는 비정상적으로 연중에 여러번의 특별법이 의회를 통과하게 됨에 따라 세법이 복잡다단하게 변경되었다. 1차 stimulus check를 받게 된 2020년 3월의 CARES Act, 2차 stimulus check를 받게 된 2020년 12월의 Consolidated appropriation act, 그리고 3차 stimulus check를 받게 된 2021년 3월의 American rescue plan act 가 우리에게 친숙한 주요 세법변경으로 꼽을 수 있겠다.

여러 가지의 세법조항이 변경되었지만 그 중에서 개인적으로 우리의 피부에 와 닿는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stimulus check 등 몇가지에 초점을 맞추어 2022년 세금보고시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1인당 \$1,200까지 받을 수 있던 1차와 1인당 \$600까지 받을 수 있던 2차의 stimulus check를 받지 못한 경우 2021년에 2020년 세금보고시 청구하여 받을 수 있었다. 1인당 \$1400까지 받을 수 있는 3차 stimulus를 받지 못한 경우 2022년에 2021년 세금보고시에 청구하여 받을 수 있다. 2020년 세금보고시 적용받았던 실업수당의 \$10,200 면세조항은 2021년 세금보고시 적용받을 수 없다.

Child Tax Credit은 2020년의 max \$2,000 대비 2021년에는 max \$3,600 받을 수 있도록 증액하였고 2021년에 미리 받을 수 있도록 하였지만 2022년에 2021년 세금보고시 정산하도록 하였기에 2021년에 미리 모두 받은 사람은 2022년에 2021년 세금보고시 Credit을 받지 못하게 된다. 부동산세금 금액이 큰 Tri-state 주민의 불만이 많은 지방세금(SALT)의 공제한도 \$10,000를 증액시키는 안은 아직 의회에 계류중이다.

본인이 회계사로 고객의 세금보고업무를 하면서 느꼈던 점을 생각하면서 슬기로운 세금보고 대처방안에 대해 몇 가지 이야기를 해보려 한다. 세금을 많이 납부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모든 사람은 세금을 최대한 적게 내려고 노력한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간다. 그렇지만 소득이 높아지면 세금을 많이 내야한다는 당연한 사실을 간과하고 자신의 소득을 도외시 한채 단지 세금이 많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자신의 정신적 그리고 육체적 건강에 득이 되지 않는다. 더욱이 미국은 다른나라들에 비하여 세금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기에 State 세금까지 고려하면 상당한 금액의 세금부담이 생기는 것을 당연히 받아들이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W-2 소득이 아닌 주식거래 등을 통하여 큰 금액의 Income이 생기는 경우에는 반드시 예납세금 (estimated tax payment)을 염두에 두고 현금 자산의 여유가 있을 때 납부하여야 나중에 세금보고시 예기

치 못하게 큰 금액으로 산출된 세금금액으로 인한 당황스러움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배우자와 본인이 각각 W-2 소득이 있는 경우를 포함하여 복수의 W-2 소득을 얻는 경우에는 withholding tax를 충분히 납부하여 놓지 않으면 세금보고시 납부할 세금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 W-2 소득에 대한 withholding tax 납부시 기본공제를 염두에 두고 행하여 지므로 복수의 W-2 의 경우는 복수의 기본공제가 감안된 withholding tax를 납부하게 되어 복수의 W-2를 합산한 세금보고시 세금이 부족하게 되는 현상이 생긴다.

자신의 세금보고를 처리하여주는 회계사가 모든 것을 잘 알아서 처리하여 줄 것이라고 지나치게 과신하는 것은 금물이다. 회계사가 고객에게 어떤 경제적인 거래 등을 알고 있는 경우 고객의 세금보고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세금보고서에 반영하여 줄 수 있지만 회계사가 모르는 경제적인 거래를 알아서 처리해 줄 수는 없는 것이다. 납세자의 입장에서 모든 경제적 거래를 기억하여 세금보고시 회계사에게 알려주는 것도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납세자 스스로 세법에 대한 개략적인 정보를 가지고 자신이 경제적인 거래를 할 때 세금보고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꼭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에 대하여 회계사로 부터 확인을 받는 작업이 필요한 것이다.

개인business의 gross income 을 포함한 과세대상소득(social security benefit 제외한 금액)이 일정금액 (65세 이상 개인 \$12,400, 65세 이상 부부합산 \$27,400) 이하인 경우는 세금보고를 할 의무가 없다. 매년 세금보고를 하여 왔기에 이번에 세금보고를 하지 않으면 뭔가 잘 못하는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고 불안해 할 필요가 없다. 세법상 세금보고를 할 필요가 없다고 되어 있는 경우 하지 않는 것은 위법이 아닌 것이다. 세금보고를 할 의무가 없어도 자발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소득은 적으나 withholding tax로 납부한 세금이 있는 경우 refund를 받기 위한 경우, rental income이 있는 경우 혹은 전체적으로 손실이지만 주식거래금액이 상당한 금액이 되는 경우 등일 것이다. *

서울에서

■ 손대홍 (미대79)

저는 지난 11월 말 다시 서울에 왔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된 이후 벌써 네 번째의 한국 출장인데 어머니가 아직 생존해 계셔서 직계가 족방문에 해당되어 처음으로 자가격리를 면제받고 입국할 수 있었습니다. 그나마 도 코로나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한국은 12월 3일부터는 격리면제를 잠정적으로 중단했으니 일주일 사이로 운 좋게 격리를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가격리를 면제받았다고 곧바로 한국 일정을 시작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선은 입국일 다음날 이른 시간에 거주지역의 보건소로 가서 PCR검사를 받았는데, 보건소는 아침 9시임에도 확진자 증가로 길게 줄이 늘어서 한참을 기다려 검사를 받을 수 있었고, 요즘은 3시간 정도는 기다려야 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체류 장소로 돌아와 다음날 오전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방 안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만약 밖으로 나간 것이 적발되면 자가격리 면제가 취소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귀국 후 이틀이 지나 PCR검사가 음성으로 나왔지만 1차 PCR검사의 음성 결과 후 다시 일주일 내로 2차 검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2차 PCR검사를 받고 다음날 음성결과를 통보받고 다시 보건소로 가서 '백신접종 확인서'를 받았습니다. 해외 입국자는 2차례에 걸친 PCR검사 음성 결과를 받으면 미국에서 백신을 접종한 카드를 갖고 가서 접종 사실을 확인받으면 내국인과 동일하게 비로소 휴대폰에 증명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확인서를 받아 나오는데 마치 조선족 동포나 구 소련의 연방국가에서 살던 고려인이 귀국하여 어렵게 대한민국 국적을 찾은 것처럼, '아, 나도 이제 내국인과 동일한 활동을 할 수 있구나' 하는 감격 아닌 감격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증명서를 받았다고 모든 절차가 완료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해외입국자는 입국 후 14일간 의료기관을 방문할 수 없다고 해서 14일이 지나 의료기관을 방문했는데 역시 문제가 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특히, 흔히 종합병원이라고 불리는 대형병원은 사전예약에 따라 휴대폰으로 사전 문진표를 작성하여 병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바코드를 받게 되는데, 최근 해외를 다녀왔다고 하니 출입인증 바코드가 빨간색이 되어 입구에서 제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다시 병원 밖에 있는 환자분류소로 가서 줄을 서서 질문지를 작성한 후 확인을 받아 몇 가지의 확인을 받은 후에야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저는 복용약이 필요해서 그런 복잡한 절차를 감수하고서라도 종합병원을 다녀와야 했습니다. 하지만 병원 내부로 들어갔다고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입구에서 들어가기 전 입국일자, PCR 검사장소, 검사일자 등에 대한 질문에 답해야 했는데, 검사과정과 마지막 치료비 납부과정까지 3차례의 동일한 질문에 대답을 해야

했습니다. 무슨 주홍글씨도 아니고 해외입국자가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할까 하는 생각이 들어 화도 나고 짜증도 났지만 이야기해보야 소용이 없기에 그렇게 다녀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국 정부는 위드코로나(With Corona) 정책을 포기하고 다시 강력한 방역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12월 3일자로 이미 자가격리 면제는 중단이 되었고 12월16일부터는 모든 모임을 백신접종자 4인으로 제한하고 식당과 카페 등의 외식업소는 오후 9시에 문을 닫도록 하였습니다. 모처럼의 만남을 기대하던 연말연시를 준비하던 시민들은 약속을 취소하고 있고 오랜만에 단체예약을 기대하던 외식업체들은 망연자실한 모습들입니다. 한 마디로 어찌할 바를 모르는 혼란의 시간이 다시 시작된 것 같습니다. 한편에서는 정부의 어설픈 대책을 질타하기도 하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그래도 정부의 노력을 지지하기도 하는데, 분명한 것은 1일 확진자가 8천여 명을 넘어서자 K-방역을 내세우던 정부의 목소리가 잠잠해졌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혼란은 코로나 문제만은 아닌 듯싶습니다. 몇 달 후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와 출마한 두 유력후보에 대한 보도가 연일 계속되고 있는데, 두 후보의 정책발표와 국가에 대한 비전과 관련한 뉴스는 없고 후보 본인과 가족의 과거 문제에 대한 상대 측의 폭로, 비방, 고소, 고발 등이 뉴스의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한국의 대통령 선거를 많이 보았지만 이처럼 혼란스러운 대통령 선거는 처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도 많은 내용이 기사화되었으니 모두들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리 눈을 찌고 봐도 각 분야에서 이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 가고, 어떤 정책으



코로나19 장기화로 발길이 한산한 서울 명동거리

로 국가의 경쟁력을 만들어 가고, 부동산은 어떻게 안정시킬 것인가, 인구 감소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며, 특히 북한과의 문제는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등에 대한 두 후보가 발표한 내용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두 후보, 또는 각각의 후보가 소속된 정당에 대한 지지 역시 그 이유가 정책에 대한 것이 아니라 평소 갖고 있던 유권자의 정치성향만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정치적 식견이 부족한 사람이라 이 정도밖에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정말 혼란스러운 선거가 될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듯 지금의 한국은 혼란스러운 시간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고객감소로 비용을 줄이느라 크리스마스 장식이 줄어든 상점가, 온라인 구매의 증가로 방문객이 줄어든 한산한 느낌의 백화점과 할인점, 고객을 받을 수 없어 불이 꺼진 식당과 카페들, 저작권료로 인하여 거의 들리지 않는 크리스마스 캐롤... 아직은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인 제가 2021년 12월말 코로나와 정치적 혼란 속에서 활력을 잃은 듯한 모습의 서울에서 느끼는 소감입니다. ❀

회원 명단 (110명 / 2021-12-20)

강교숙	김병순	박희병	오유섭	이행순	최준희
강에드	김상만	배상규	오인석	이홍빈	최진영
강영선	김승호	성기호	유규환	임도혁	최철용
계동휘	김영덕	손갑수	유무영	임호순	최학주
고애자	김영만	손경택	윤선구	정도현	추재욱
곽상준	김우영	손대홍/	윤종숙	정수일	한영수
곽선섭	김익성	남종현	윤현남	조달훈/	한응오
곽승용	김인형	손옥화	이강홍	조승자	한대진/
구달희/	김정필	송근숙	이준	정해민	안용희
권정덕/	김종울	송웅길/	이대연	조상근	안용웅
홍선경	김창수	송현자	이대영	주상선	허용사만
권영대	김태일	송학린	이범선	주재양	홍정표
권태전	김한중	신진식	이수호	진봉일	홍지복
금영천	김현중	이상무	이용대	천병수/	홍종만/
김광수	노용면	신응남	이전구	천종화	홍예경
김광현	양준기	양인회	이중석	최구진	
김동건	박기환	오성	이준행	최수용	
김문경	박준구/	오순문	이준희	최순채	
김문연	최숙희	오용호			

골든클럽 2022년 행사 일람 (2021-12-20)

1월	23-29일	플로리다 골프트립
3월	3월 26일(토)	신년교례회 (정기총회) -Atrium of Tenafly
4월	4월 14일(수)	Hiking - Harriman State Park
	4월 21일(목)	Opening Golf Outing
5월	5월 18일(수)	동창회 춘계 골프대회
	5월 26일(목)	여성회원 피크닉 - 손대홍 회원 뒷뜰
6월	6월 9일(목)	Golf Outing
	6월 23일(목)	Picnic - Rockland Lake State Park
7월	7월 14일(목)	Golf Outing
	7월 16일(토)	컴퓨터 연구원 피크닉
	7월 28일(목)	Barnes Museum in Philadelphia Tour
8월	8월 11일(목)	Golf Outing
9월	9월 15일(목)	Golf Outing
	9월 24일(토)	뉴욕지역동창회 정기총회및 Picnic
10월	10월 12일(수)	동창회 추계골프대회
	10월 20(목)	Harriman State Park 산행
11월	11월 3일(목)	Golf Outing
12월	12월3일(토)	뉴욕지역동창회 송년회
1월		플로리다 골프트립
3월	3월25일(토)	신년교례회, Atrium of Tenafly

2022년 연회비 납부 명단 (16명 / \$1600/ 2021-12-20)

강에드	오용호
계동휘	이대영
김창수	정해민
송웅길	한용오
송현자	홍종만
송학린	홍예경
신진식	홍지복
임호순	최순채

2022년 후원금 기부 명단 (7명 / \$3200 /2021-12-20)

강에드 300	오용호 300
송학린 1000	임호순 300
신진식 300	
정해민 500	
홍종만 500	

2021년 입회비 납부 명단 (6명 / \$1,200 /2021-12-20)

남종현	금영천	김승호	김한중	윤종숙	이상무
-----	-----	-----	-----	-----	-----

발전기금 기부명단 (1명 / \$20,000 /2021-12-20)

이준행 20,000

골든클럽 회비 납부 양식

이 회비 납부 양식을 Check (payable to **SNUAA**)와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주소: SNUAA 44 Macintyre Lane, Allendale, NJ 07401
 (T) 201-965-7759 (E) jaypkim@keiusa.com

성명: (한글) _____ (영문) _____ 생년월일: _____
 단과대: _____ 학과: _____ 입학년도: _____ 졸업년도: _____
 전화번호: _____ Email: _____
 입회비 \$200
 연회비 \$100
 후원금 (\$) _____)

주소 (Home): _____



1월 생일을 축하합니다.

강교숙 (간호73) 이전구 (농대60)
 강영선 (공대50) 정도현 (공대57)
 곽선섭 (공대61) 조승자 (가족)
 권태전 (사대54) 한응오 (대학원)
 김광수 (공대72) 홍사만 (문리61)
 김종울 (사대51)
 손경택 (농대51)

골든클럽 컴퓨터연구원 강의

뉴욕: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오후 1시
 뉴저지: 매주 월요일 /오전 9시30분 - 오후 1시
 Zoom video 강의로 진행됩니다.
 문의사항: 양인회 (917-494-0223)
 홍종만 (646-342-2667)